

<대불련 50년사 책자용>

축 사

50년의 성상, 100년의 기대

자승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

대불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사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대불련에 몸담았고, 젊음의 열정으로 불교를 사랑하고 조국애를 지닌 젊은 불자들의 합성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듯 반세기의 또렷한 역사의 현장 하나하나가 지성과 열정이 함께하는 생생한 모습으로 담겨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963년 9월 출범한 대불련의 역사는 1962년 출범한 통합 조계종단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하였으며, 이후 50년 동안 현대 불교사의 영광과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불교계와 조계종단을 향한 깊은 애정과 바람으로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는 불교를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순간을 늘 함께 해온 것입니다.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 된 마음이었기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최선의 정진을 다해 왔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용기와 힘이 오늘날 불교계와 조계종단에 큰 힘이 되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불련은 불교 중흥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기여해 왔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지성의 힘으로 대중화되고 현대화된 불교를 선창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서 불교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50년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불련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졸업한 선배들은 젊은 불자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담아줄 수 있어야 하며, 후배들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불자들은 패기와 열정으로 불교 사랑과 조국 사랑을 실천하여,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개척해가야 할 미래와 새롭게 기록해야 할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대불련 50년을 준비해오고, 50년사 발간을 준비해온 모든 대불련인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뜻으로 점검하고 발간하는 '50년사'가 한국불교 현대사에 소중한 자취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며 100년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